

오레곤에 계신 서울대학 동문 여러분,

다 무고하시리라 믿습니다.

1. 서울대 오레곤동문회 Forum 인 Zoom Table 세미나 시리즈 제 7 차 강연이 오늘 8 월 20 일 (토요일)에 있었습니다.

이번 강연엔 오레곤에서 5 분, 타주에서 3 분등 연사포함 9 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. 멀리 페루에서 시간을 내 주신 김왕도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새벽인데도 한국에서 참석하신 김미원 여사, 그리고 오레곤주, 타주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

오레곤 지역 참석자 (존칭생략): 한국남(공대 57), 김성열(치대 61), 박희진(농대 78), 박혜선 (자연대 79), 이인순, 그리고 김미원 (김왕도박사 부인, 한국에서 참석)

타주에서 오신 동문 (존칭생략): 손명세 (샌디에고), 김용헌 (?)

강연 후기 (박 희진)

페루의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는 김 왕도 박사와 부인 김미원여사의 페루 생활기를 잘 들었습니다. 잉카의 찬란했던 문화의 후손들, 그러나 문자가 없던 과거와의 끈이 사라져, 현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순박한 페루인이지만, (손명세 동문의 설명대로) 칠레의 유명 시인 Pablo Neruda 의 영향을 받아 예전의 영광/역사에 눈을 뜨는 저항세력도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. 치안도 정치도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지만, 바깥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수도 리마의 변화가는 미 어느도시 못지않은 화려함이 있으며, 페루 자연의 아름다움은 최고였다란 말도 나왔습니다 (한국남교수님).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감에따라 그만한 대우도 받는다는 김미원씨의 페루생활상 설명도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. 끝으로 지금 가르치시며 연구하는 bio-mechanics 의 소개도 balanced sitting 을 예로 들며 결국은 기계공학의 원리를 가지고 인체에 적용하는 학문이라는 점도 설명하셨습니다.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있던 자유토론시간엔 Peruvian 요리의 다양성과 그 독창성에대한 이야기가 나와 (김미원 여사), Portland 시내에 있는 Peruvian Restaurant Andina 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(김성열 동문).

강연녹화 link 를 밑에 놓았으니, 관심있는 동문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(이번엔 비디오 편집을 자유토론까지 넣어, file size 로 인해, low bitrate 로 mp4 를 만들었으니(2.45GB), 비디오 quality 양해바랍니다.)

https://1drv.ms/u/s!AtwYr1_PMKEpgttjn4ZDiD-56Q56pg?e=l7srm3

2. 오레곤 Zoom Table 제 8 차 강연

일시: 9 월 24 일 (토요일) 오후 7 시 (서부시간), 그 후 자유대화시간

연사: 김 영호 박사 (정치외교 78), 교수, 정치외교학과, 성신여자대학

제목: 한반도와 국제 정세

“김영호교수의 세상읽기” 정치 외교상황 전문 channel YouTube 진행중이신, 성신여대 정외과 김 영호교수를 직접 모셔, 점점 심각해가는 한반도 상황을 짚어보려합니다. 이역만리 미국에 수십년을 살아 미국시민이 되었어도 우리가 태어난 모국의 상황은 우리 모두에겐 중요한 일이 아닐수없습니다. 특히 미국과 중국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이 상황과 더불어 한중, 한일의 관계가 점점 미묘해져가는 이 상황은 우리가 더 이상 모른체하며 지낼수없는 상황까지 가는 듯합니다. 여러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수있으나, 전문가의 정확한 현실 직시를 들을 기회입니다.

김 영호 교수 (강연 발제문)



- **미중패권전쟁과 대한민국**

세 번의 글로벌 패권전쟁과 한반도/구한말 영국과 러시아: 거문도 점령사건/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: 냉전, 분단, 전쟁/21세기 미중패권전쟁: 대만, 남중국해, 북핵

- **북핵 문제 현황과 대응방안들**

북한 7차 핵실험과 60개 핵무기 보유/ 대응방안들: 한국 독자 핵개발, 미국 전술핵 재반입, 미국의 핵우산 강화, 나토식 한미핵공유협정

- **한미동맹의 현안들**

한미군사훈련 재개/ 사드 배치 문제/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/핵우산 강화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변경

- **한일관계 현안들**

징용문제 해법: 기금 조성 통한 보상안/한일 안보 협력 문제

- **한중관계 현안들**

중국의 '3불' 요구와 사드 정식 배치 문제/'칩4 협의체' 한국 참여와 중국의 입장/대만문제와 한국의 입장

Join Zoom Meeting

<https://us02web.zoom.us/j/86702478884?pwd=Uk5SVy9WMUIrSVA2QzZMZWpQQ0szQT09>

Meeting ID: 867 0247 8884

Passcode: 963790

3. 한국 서울대학 “총동창회의 회보”가 오레곤지부로매월 10 부씩 배달되고 있습니다.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,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.
4. 미주 총동창회 Web Site 속 오레곤지부 web Page 가 개설되어, 지난달의 뉴스레터등을 볼수있고, Bulletin board 등이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. <http://snuaa.org/main/oregon-chapter/>
5. 한국과학 기술 한림원 (회장 유 옥준 박사)의 세미나 시리즈
한림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시리즈인 한림원탁토론회의는 모국인 한국의 과학 방향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 시리즈입니다. 세미나 일정에 관심이 있는 동문은, 한림원 정회원이신 오레곤의 한국남 교수님 (공대 57)에게 문의하시면(동문명부참조) 그 세미나 시리즈의 일정을 알수있습니다.
6. 동문 소식란 입니다. 동문들주변의 경조사나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,여기가 바로 알림의 장입니다. 소식뿐만이 아닌 여행시 사진이나 비디오, 글도 환영합니다. 연락을 주기바랍니다.
 - 이현찬 동문(상대 67)의 모친께서 지난 8 월 16 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.
상대를 졸업후 미국에서 CPA 로 일하셨고, 오레곤 제일 침례교회의 은퇴 목사님이신 이현찬 동문의 어머니은 고 김재순 권사님이십니다. 영결식은 Portland Sunset Finley Memorial Park 에서 8 월 20 일(토요일) 오후 1 시에 있었습니다.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. 이현찬 목사님 연락처: 503.804.5826 / HCLEE@ROCKETMAIL.COM
 - 한국남 교수님의 “희토류 이야기” 기사가 8 월 동문회보에 기재되었습니다.
오레곤의 한국남교수님의 강연 요약이 서울대동문회보 8 월호 2 면에 실렸습니다. WA 지부의 주관으로 열렸던 그 세미나를 박용필 동문회보 편집고문님께서 요약을 하셨습니다. 다른 지역의 동문들도 희토류에대한 정보를 접할수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

이상- 건승하기 바랍니다.

박희진

SNUAA-Oregon 지부회장

Jan 2022-Dec 2022